



John 9

요한복음 9
Tape #8077
By Chuck Smith

John tells us that Jesus did many other signs which he did not record. But he did record these signs that you might believe that He is the Messiah, the Son of the living God, and by believing, have life in His name. At the end of the book John said, "I suppose if everything that could be written was written, that all of the libraries of the world could not contain the things that could be written concerning Jesus Christ" (John 21:25). John picked out eight signs that Jesus did. The eight signs that proved that He was the Messiah, the Son of the living God. 요한은 예수께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많은 표적도 행하셨다고 말한다. 그가 이런 표적들을 기록한 목적은 우리로 그분이 메시아 즉 살아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도록 하기 위함이며 그렇게 믿을 때 그분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그는 말한다. 이 책 끝에서 요한은 이렇게 말한다: "예수의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말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요 21:25). 요한은 예수께서 행하신 표적 8가지를 선택하여 기록하였다. 그 8가지 표적은 그분이 메시아 즉 살아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해 보이는 것들이었다.

Tonight in chapter nine, we are looking at the seventh of the eight signs. And in this sign, Jesus the only time recorded in the gospels healed a person of a genetic problem. Now in the book of Acts, there were two who were healed of genetic problems. Two men who were lame from birth who were healed. But the gospel. No doubt He did heal others but they are not recorded in the gospels with the exception of this man who was born blind. And this is, I said, constitutes the seventh of the eight signs that John shows. The eighth, of course, was the raising of Lazarus from the dead. 오늘 밤 9장에서 우리는 그 여덟 가지의 이적 중 일곱번째의 이적을 살펴보게 될 것이다. 이 표적에서 예수님은 한 사람을 치유하시게 되는데 그는 복음서에 기록된 사람들 중에서 유전적인 질병을 가진 유일한 사람이다. 사도행전에서는 유전적 질병을 치료 받은 사람이 둘 등장한다. 날 때부터 절름발이였던 두 사람이 치유를 받은 것이다. 그러나 복음서에는 유전적인 질병이 있던 다른 사람에 대한 기록이 없다.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본문의 이 사람을 제외하고는 말이다. 앞에서 말한 대로, 이 기사는 요한이 제시하는 일곱번째의 표적에 대한 것이다. 여덟번째의 기사는 나사로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난 사건이다.

So we are still in Jerusalem, still during the time of the feast of the passover, the events that followed the feast of the passover. 우리는 아직 예루살렘에 있으며 유월절 절기 중에 있다. 보다 더 정확히 말하면, 유월절에 연이어지는 행사가 벌어지고 있는 중이다.

And as Jesus passed by, he saw a man which was blind from his birth. His disciples asked him, saying, Master, who did sin, this man, or his parents, that he was born blind (9:1,2)?

They were curious. There was a common feeling and belief that tragedy only came as the result of sin. That a person who is going through a physical, emotional hardship is doing so because of sin. And they felt there was a very direct cause and effect relationship with sin. So when they saw a man who was born blind, the question is, Is God punishing his parents for some sin that they committed? As the scriptures said, that the sins of the fathers will be visited upon the children to the third and the fourth generation of those who continue in their sins. Is God punishing them for their sins through their child being born blind? Or was he guilty of a prenatal sin? Or did they believe in the

pre-existence of the human soul? And thus, who did sin? This man was born blind. 사람들은 알고 싶은 게 있었다. 당시에는 이런 통설이 믿어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재난은 죄를 지을 때만 다가온다. 신체적이거나 감정적인 고난을 당하는 사람은 죄를 지은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한다는 것이다. 죄와 재난 사이에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분명하게 성립된다고 사람들은 느끼고 있었다. 그러므로 소경으로 태어난 자를 볼 때 사람들은 곧잘 이렇게 질문하곤 했다: 부모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부모들을 벌하고 계시는 게 아닌가? 성서에서도 말씀하기를, 아버지의 죄는 계속 그런 죄 가운데 거하는 후손 삼사 대에까지 이르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하나님께서는 소경으로 태어난 자식을 통해 그 부모의 죄를 벌하고 계시는가? 아니면 그에게 그가 태어나기 전에 지은 죄가 있는가? 그렇다면 사람들은 인간 영혼의 선재성(先存性)을 믿고 있었던 말인가? 하여튼 누가 죄를 지었던 말인가?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났으니 말이다.

They did believe that it was possible to sin within the womb, and so the question, Whose fault is this? It's interesting how so often when we see human tragedy and human suffering, we're always wanting to find the blame, the cause. Whose fault is this? But it's interesting that Jesus discarded the question as to whose fault it was. He answered it by declaring, Neither him or his parents. They are not responsible for his being born blind. This is just one of those things that God has allowed in order that He might accomplish His purposes. 당시의 사람들은 엄마 뱃속에서 죄를 짓는 게 가능하다고 믿고 있었다. 따라서 그들은 누구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라고 질문을 던졌던 것이다. 우리가 사람의 재난이나 고통을 보게 되면 우리는 언제나 누구 책임이며 뭐가 원인인지 알아보고 싶어하는데, 참으로 흥미로운 습성이다. 이 게 누구 탓인가? 라고 묻는 것이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이 게 누구 때문인가? 라는 질문을 거들떠보지도 않으셨다. 그분은 이렇게 선언하셨다: 그의 죄도 아니고 그의 부모 죄도 아니니라. 이들은 그가 소경으로 태어난 것에 대해 아무런 책임이 없느니라. 이 사건은 단지,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허용하신 일들 중 하나일 뿐이니라.

So Jesus said, Neither hath this man sinned, nor his parents: but that the works of God should be made manifest in him (9:3).

God at times allows us to experience difficulty, hardship, even suffering that He might accomplish His works in our lives. Paul the apostle was given a thorn in the flesh, a minister of Satan, lest he be exalted above measure because of the abundance of revelations that have been given to him. God had allowed this thorn in the flesh because God was wishing to do a special work in Paul which required special revelation.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간난신고와 재난을 경험하게 하심으로써 우리 삶 속에서 자신의 일을 성취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다. 사도 바울에게도 육체의 가시가 있었는데 그것은 사단의 사자였다. 이는 그가 받은 계시가 너무 많음으로 인하여 필요 이상으로 교만하지 못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섭리였다. 하나님께서 육체에 이런 가시를 허락하신 것은 바울로 하여금 특별한 사역을 수행하게끔 하시고자 함이었는데, 그 사역이란 특별한 계시가 필요한 것이었다.

Paul the apostle speaks of the hardships, the sufferings that he endured. But he said, "Yet we know that the present suffering is not worthy to be compared with the glory that's going to be revealed" (Romans 8:18). 사도 바울은 자신이 당한 고난과 고통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족히 비교할 수 없도다" (롬 8:18).

Jesus Himself suffered. He suffered the agony of the cross, the shame of the cross. But again, "Who for the joy that was set before Him endured the cross, despising the shame" (Hebrews 12:2). So the purposes of God being worked out in our lives often through hardship or through suffering.

God is working His purposes. And so in this man's life, that the works of God should be made manifest in Him. God's work manifested. 예수님도 고난을 당하셨다. 그분은 십자가의 고통을, 십자가의 수치를 당하셨다.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히 12:2). 따라서, 종종 고난과 재난을 통해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곤 한다. 그런 방식을 통해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는 것이다. 이 사람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야만 했던 것이다.

And then Jesus declared, 그 다음에 예수께서는 이렇게 선언하셨다.

I must work the works of him that sent me, while it is day: the night comes, when no man can work (9:4).

Jesus is declaring that this man's condition existed that God might manifest His works and then Jesus declared, “I must work the works of Him that sent Me.” What was then the work of God that was manifested in this man? It was the healing of his blindness. 예수께서는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고, “나는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행해야 한다”고 선언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사람에게서 나타나야 할 하나님의 일이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그의 보이지 못하는 눈을 치료하는 일이었다.

Oftentimes there is not a direct cause and effect as far as sin and pain go. There is an indirect many times. Good people suffer sicknesses. Good people die of illnesses and of cancer and of other things. It doesn't mean that it is God punishing them because of some sin in their lives. But because of sin in the world, with sin entered death and those things that bring death. So in an overall sense, the suffering of the world is the result of sin. Not necessarily direct cause and effect relationship, but many times indirect. If there have been no sin, there would be no suffering. There would be no death. There would be no pain. It would be a perfect world if it were not for sin. 죄와 고통에 관한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다. 여러 경우에 있어서 간접적인 인과관계가 성립된다. 선한 사람들이 질병에 걸린다. 선한 사람들도 질병이나 암 또는 다른 것들로 인해 죽는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들 삶의 죄 때문에 그들을 벌하셨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세상의 죄 때문에 죄와 함께 사망이 세상에 들어왔고 사망을 초래하는 일들이 생겨나게 된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러므로 대체로 볼 때, 세상의 고통은 죄의 결과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반드시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어서, 간접적인 인과관계가 발견되는 경우도 자주 있다. 여하튼 죄가 없었다면 고통도 없었을 것이요, 그러면 사망도 없었을 것이고 고통도 없었을 것이다. 죄만 없었다면 이 세상은 완전한 세상이 되었을 것이다.

So all of these things indirectly result from the fact that sin is in the world. And because we are living in this world, God does not give to us a divine immunity against sickness, against viruses, against suffering, against aging. It's just not there. But God is with us and wonderful at times, God will manifest His desire to counteract the effects of sin in the world. So each of us have experienced the touch of God upon our lives in the removing of the blight of sin. God is in the business of restoration. God is in the business of manifesting His power against the consequences of sin in a person's life. That is, again, sin in a general sense in the world.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은 죄가 세상에 있음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간접적인 결과이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한, 하나님이 우리를 질병, 바이러스, 고난, 노화(老化)로부터 면제 시켜 주시지는 않는다. 그런 일은 이 세상에는 없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면,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죄를 저지하기 원하시는 자신의 뜻을 때때로 나타내실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라는 고질병을

없애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삶에 와 닿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지금도 회복의 작업을 하고 계신다. 사람의 삶 속에서 죄가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자신의 권능을 현시(顯示)하고 계신다. 하지만, 일반적인 의미에서는, 여전히 죄가 이 세상에 있다.

“I must work the works of Him that sent Me, while it is day,” Jesus said. The work of God who sent Him was the healing of this man’s blind eyes. Jesus refers to the night that is coming when no man can work. The day when the opportunity of manifesting God’s power will be over. “때가 아직 낮이매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내가 하여야 하리라.”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의 일이란 이 사람의 먼 눈을 고치는 것이었다. 예수께서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밤에 대해서도 언급하셨다. 이는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낼 기회가 끝나 버리는 날을 의미하는 말이었다.

As long as I am in the world, I am the light of the world. When he had thus spoken, he spat on the ground, and made clay of the spittle, and he anointed the eyes of the blind man with the clay (9:5,6),

Why did Jesus use this method of healing the man? There were other blind people who Jesus healed and some of them He healed with just the word. Others He touched their eyes and they could see. Jesus used an unusual method of making a bit of clay, spitting on the dirt and stirring it up, making some clay and putting it in the fellow’s eyes. And then commanding him to go down to the pool of Siloam and to wash it out of his eyes. 왜 예수께서 이 사람을 이런 식으로 고치셨을까? 예수께서는 다른 소경들도 고치셨는데, 그들 중 몇몇은 단지 말씀으로만 고치셨다. 다른 소경들은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그만 나아버리고 말았다. 본문의 경우에는 예수께서 특이한 방법을 사용하셨으니, 진흙을 조금 개어 가지고 거기다 침을 뱉은 후 짓이겨서 병자의 눈에다 넣으셨던 것이다. 그리고 나서는 그 사람에게 실로암 연못으로 가서 눈을 씻어라 고 명령하셨다.

This happened on the sabbath day. It was specifically forbidden in their tradition and in their interpretation of the law to make clay on the sabbath day. So Jesus is deliberately violating the tradition of their law. 이 일은 안식일에 발생하였다. 그들의 전통과 율법 해석에 의하면, 안식일에 진흙을 이기는 것은 철저히 금지된 일이었다. 그런 고로 예수께서는 고의적으로 저들의 율법적 전통을 어기신 것이다.

Back in chapter five when Jesus came to the pool of Bethesda and saw the man who was lying there who was lame, and He asked him if he would like to be healed. And he said, Sir, I don’t have anybody to help me. When the water is troubled, someone always is there before me. Jesus said, “Take up your cot and go home.” And the man was walking home, carrying his cot and the Pharisees caught him and said, What are you doing violating the sabbath day, carrying your cot? He said, The man who healed me told me to take my cot and go home. They said, Who was it? And he said, I really don’t know. Later on, when he found out it was Jesus, he went to the Pharisees and told them, It was Jesus. 5장을 되짚어보면, 예수께서 베데스다 연못으로 가셨을 때 그분은 거기 누워 있는 한 절름발이를 발견하시고는 네가 치료 받기를 원하느냐? 라고 물으셨다.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선생이여, 저를 돕는 사람이 하나도 없나이다. 물이 동할 때는 언제나 누군가가 저보다 앞서 들어가나이다. 예수께서는 “네 자리를 들고 집으로 가라”고 말씀하셨다. 그 사람이 자기 자리를 들고 걸어서 집으로 가게 되자, 바리새인들이 그를 붙들고 물었다: 네가 안식일을 범하며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 어떤 일이나? 누가 이런 일을 시켰느냐? 그 사람이 대답했다: 저는 정말로 모릅니다. 후에 그가 그분이 바로 예수였다는 것을 알게 되자 그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그런 일을 시키신 분이라고 말했다.

This began the conspiracy to put Jesus to death because He had violated their traditions and their traditional observance of the sabbath day. And this is what caused the initial breach between Jesus and the Pharisees in Jerusalem. 이런 일을 기화로 예수를 죽이려는 음모가 시작되었으니, 이는 그분이 바리새인들의 전통을 어기고 안식일을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이 일로 인하여 예루살렘에서 예수와 바리새인 사이가 벌어지기를 시작했다.

Now here He is again much later, back in Jerusalem, it is the sabbath day and He is violating their sabbath day on at least two counts. Number one, it was wrong in their estimation to heal on the sabbath day. They had a lot of interesting interpretations of the, what constituted say, violating the sabbath. The sabbath day you were not to bear a burden. They said, If your sandals were held together with nails, you couldn't wear them on the sabbath day because the extra weight of the nails would constitute bearing a burden. They had a lot of little interpretations like this. 이제, 예수께서는 오랜 후에 여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신 것이다. 이 날도 안식일이었으므로, 예수께서는 안식일을 적어도 두 번은 범하신 것이다. 우선 그들의 판단에 의하면,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잘못되었다. 무엇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인가에 대해 그들은 여러 가지 재미난 해석을 내리고 있었다. 안식일에는 짐을 져서는 안 되었다. 안식일에 못이 박힌 신발을 신어서는 안 되었는데, 이는 그 못이 짐에 해당하기 때문이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들은 아주 많은 각가지 해석을 내리고 있었다.

And so here is Jesus healing on the sabbath day. They said you can take whatever measures are necessary to save a life but nothing towards curing, nothing towards healing. So you couldn't pour cold water on a sprained ankle. That would be helping it to heal. You had to wait until the sabbath day was over. So the making of clay, violating the sabbath. The healing of the man's blind eyes. It was the sabbath day and this was the flash point with the Pharisees. This is the thing that had so angered them with Jesus. The fact that He would use this method, it wasn't necessary. We know that it wasn't necessary to use this method. And yet Jesus did.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자를 치료하신 것이다. 그들은 생명을 구하는 데 필요한 일이라면 어떤 조치든 취해도 된다고 말하면서도, 병은 치료하는 일은 절대로 안 된다고 해석하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뻔 발의 열을 식히기 위해 찬 물을 붓는 일도 할 수 없었다. 그것은 치유를 돕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려면 안식일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하였다. 따라서 진흙을 이기는 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일이었다. 눈먼 사람을 고치는 일도 마찬가지였다. 그 날이 안식일이었는데, 이것이 바리새인들에게는 문제의 초점이었다. 그들이 예수께 대해 그렇게 화를 냈던 것도 다 이런 연유에서였다. 그분이 이런 방식을 사용하신 사실, 그것은 불필요한 일이었다는 것이다. '우리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불필요했다는 것을 안다; 그런데도 예수는 그런 방법을 사용했다'는 것이었다.

In this there is another interesting concept. And we know that faith has an important part of our relationship with God and receiving from God. Jesus said, "If you can believe, all things are possible to him that believes." We do know that so often our faith is in a passive state. Oh yes, I believe God can do it. That's rather passive. And you can go your whole life believing that God can do something but never see it done. There's a vast difference between saying, I believe that God can do it, and I believe that God will do it. And there is even a difference between saying, I believe that God will do it, and I believe that God will do it now. When you get to, I believe that God will do it now, you now have an active faith.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의 흥미 있는 개념을 발견할 수 있다. 우리가 알기로는,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받음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너희가 믿을 수 있다면,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너무도 자주 소극적인 상태에 있게 되는 것을 본다. 아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런 태도는 다소 소극적인 것이다.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실 수 있다고 믿으면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한 번도 보지 못한 채 평생을 보낼 수도 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실 수 있다고 나는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실 것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커다란 차이가 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실 거라고 나는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그 일을 지금 당장 행하실 것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도 차이가 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지금 하실 것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라고 말할 경우, 여러분은 지금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But many times, it takes something to trigger that faith into action. Believing now. So that I believe that this is one of the reasons why the Lord commanded that they should lay hands on the sick and they shall recover. That your faith is set to be triggered when the hands are laid upon me and I'm anointed with oil, I know that God will heal me then. Like the woman who said, If I can just but touch the hem of His garment, I know that I'll be healed. And there was that place of contact where the faith was released for the healing now. The moment she grabbed the hem of His garment. The virtue went forth from Christ and she was healed, according to her testimony unto Jesus. 그러나 많은 경우에,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데는 뭔가 계기가 필요하다. 지금 당장 믿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나는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라. 그러면 나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당신의 손이 내게 얹혀지고 내가 기름 부음을 받게 될 때,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실 것임을 나는 압니다. 이는 마치 다음과 같이 말한 한 여인과 같은 태도라 하겠다: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나는 고침을 받게 될 것이다. 이제 그런 태도는 믿음이 풀려나와 치유를 가져올 수 있는 접촉 점이 되었던 것이다. 그녀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는 순간이 그런 접촉 점이 형성되었던 것이다. 그녀가 예수님 앞에서 한 간증처럼, 그리스도로부터 효능이 나아가서 그녀를 치하게 되었던 것이다.

So with Paul, they took the sweatbands when he was in Ephesus and laid them on the sick and they were healed. With Peter, as his shadow would pass on the people, fall on people, they were healed. It's because they had in their minds that point of contact where their faith would be activated. I know that if Peter will just walk by and his shadow falls on me, the moment his shadow falls on me, I know God's going to heal me. And thus, they would line the people in the streets when Peter was walking down the street so that his shadow might fall on them that they might be healed. 바울에게서도 그런 일이 발생한 적이 있다. 그가 에베소에 있을 때, 사람들이 그의 손수건을 갖다가 병든 자에게 얹으니 치료가 된 일이 있었다. 베드로에게서도 그런 일이 발생하였다. 그의 그림자가 사람들 위를 지나며 그들을 덮자, 그들이 치유를 받은 것이다. 이 모두가 그들의 마음 속에 그들의 믿음을 역동적으로 분기 시킬 접촉 점이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베드로가 내 곁을 지날 때 그 그림자가 나를 덮으면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하실 것임을 나는 안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베드로가 길을 지날 때 길가에 늘어서게 되었으며, 그림자가 그들을 덮자 그들은 치유를 받았던 것이다.

Nothing spiritual about Peter's shadow, nothing magical. It was just something that a person's faith was released at that point. And it became active. It could be that with the putting of the clay in the man's eyes it was an opportunity to give a place of activating the faith. Go wash in the pool of Siloam and the man had that feeling, If I wash I'm going to be able to see. And it gave him that opportunity for releasing faith. 베드로의 그림자에는 신령한 것이 하나도 없었으며 마술적인

힘도 전혀 없었다. 바로 그 순간에 당사자의 믿음이 풀려나 역동적인 것이 되었을 뿐이었다. 소경의 눈에다 진흙을 이겨 발랐을 때도, 그것은 믿음에 활력을 불어넣는 기회가 되었을 뿐이었다. 실로암 연못으로 가서 씻어라 하고 명령하시니까, 그 사람은 만일 내가 그렇게 순종한다면 나는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믿었던 것이다. 그 명령이 믿음을 풀어놓을 기회를 그에게 제공했던 것이다.

But I personally feel that Jesus is just putting mud in the Pharisees eyes, so to speak. He doesn't back away from confrontation. 그런데 예수께서는 여기서 말하자면 바리새인들의 눈에 진흙을 넣으신 것이라고 나는 개인적으로 믿는다. 그분은 결코 그들과의 대결을 피하지 않으셨다.

And so Jesus told the man, Go, wash in the pool of Siloam, [and John tells us] (which by interpretation is, Sent.) (9:7)

Back in the time of King Hezekiah when Sennacherib was coming with the Assyrian army to invade Judah and to capture Jerusalem, knowing that the armies were on the way, the main water supply was from the virgin spring or called the spring of Gihon which is down in the Kidron Valley, but was outside of the city walls and thus it was very easy for the enemy to cut off their water supply. And so Hezekiah ordered these men to start digging a tunnel through solid rock that would come under the city walls into the city so that they would have this fresh water supply within the city. So a group of men began digging through the rock at the pool, of what became the pool of Siloam, and others from the spring of Gihon. They started digging towards each other. They didn't go in straight lines but sort of back and forth so that 366 feet would be straight through. It was 563 feet is what the tunnel is if you walked through it and they finally met somewhere there in the middle. They could hear each other talking, they realized they were only about nine feet apart. They began to dig towards each other until their picks met each other and the water began to flow from the spring of Gihon to the pool of Siloam. So they called it the pool of Sent because the water was sent through the tunnel from the spring of Gihon into the pool. And so that's where it got its name. Siloam means Sent, the water is sent through this tunnel that was dug by the decree of Hezekiah. 히스기야 치세 때 산헤립이 앗수르 군대를 이끌고 유다를 침공하여 예루살렘을 포위하였다. 당시 주요한 샘 근원은 기드론 골짜기 아래에 있는 기혼 샘이라 불리는 처녀 샘이었는데, 유다 군사들이 나와 예루살렘 성벽 밖에 포진하여 있는 것을 보고는 원수들이 아주 간단하게 그 물길을 차단해 버리고 말았다. 그러자 히스기야 임금은 군사들에게 명하여 단단한 바위를 뚫고 성벽 밑을 지나 도성 안으로 들어가는 터널을 만들도록 하였다. 도성 안의 사람들에게 신선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였다. 그리하여 일단의 사람들이 후에 실로암 샘이라 불리게 된 연못에서부터 바위를 뚫고 들어가기 시작하였고, 다른 사람들은 기혼 샘에서부터 뚫고 들어가기 시작하였다. 그 두 무리가 서로 반대 쪽에서 동시에 터널을 파 들어가기 시작한 것이다. 그들은 직선으로 굴을 판 것이 아니라 지그재그 식으로 파 들어갔는데, 직선 거리로는 366 피트가 되었다. 실제 총연장은 564 피트가 되었는데, 그들은 중간 어디선가 서로 만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었다. 서로의 간격이 9피트 밖에 안 되었을 때는 상대방이 말하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었다. 결국 굴을 파던 사람들이 서로 만나게 되었고, 기혼 샘으로부터 실로암 연못까지 물이 관통하여 흐르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그 연못을 보냄을 받은 자의 연못이라 부르게 되었는데, 물이 기혼 샘으로부터 터널을 통해 그 연못까지 보내졌기 때문이었다. 실로암이 보냄을 받은 자를 의미하는 이름을 갖게 된 내력이 그러하였으니, 곧 히스기야 왕의 명에 의해 판 이 터널을 통해 물이 보내어졌기 때문이었다.

So the man went his way, washed, and when he washed, he came seeing (9:7).

He could see. Born blind. Now he can see. 그는 보게 되었다. 소경으로 태어난 자가 이제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The neighbours therefore, and they which had seen him that was blind, said, Is not this he that sat and begged (9:8)?

Isn't this the blind man who for all of these years was sitting there begging? 이 자는 오랜 세월 동안 저기 앉아서 구걸하던 그 소경이 아니냐?

Some said, This is he: others said, That sure looks like him: but he said, I am me (9:9).

I am the one. 그렇습니다. 제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Therefore they said unto him, [How is it that you can see?] How were your eyes opened? He answered and said, A man that is called Jesus (9:10,11)

Notice now, the progression of the revelation. He starts out, "A man who is called Jesus," 여기서, 계시가 점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하라. 그는 이제 이렇게 말을 시작할 수 있게끔 되었다: "예수라 하는 분이..."

made clay, and He anointed my eyes, and said unto me, Go to the pool of Siloam, and wash: and I went and washed, and I received sight. Then they said unto him, Where is he? He said, I don't know. They brought him to the Pharisees the one that before was blind. And it was the sabbath day when Jesus made the clay, and opened his eyes (9:11-14).

So you see, here's the sticking point. This was the sabbath day. A direct violation of their interpretation of the sabbath law. You're not to make clay specifically on the sabbath day. 여러분이 알다시피, 여기서 난제가 발생했던 것이다. 이 날은 안식일이였다. 그러므로 이 치유의 행위는 안식일에 대한 저들의 해석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였다. 특히 안식일에는 진흙을 이겨서는 안 되었는데도 말이다.

Then again the Pharisees also asked him how he had received his sight. He said unto them, He put clay upon my eyes, and I washed, and I see. Therefore said some of the Pharisees, This man is not of God, because he doesn't keep the sabbath day. Others said, How can a man that is a sinner do such miracles? And there was a division among them (9:15,16).

You can see, here are the old sticklers. Can't be of God, He did this on the sabbath day. Others were saying, But wait a minute, how can a man do these miracles?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것은 오래된 난제였다. 저가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하니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일 리가 없다 라고 몇몇 사람들은 말했다. 다른 사람들은 좀더 기다려 보자.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이런 기적을 행할 수 있겠느냐? 라는 입장이였다.

You remember when Nicodemus, one of the Pharisees, came to Jesus. He said, We know that you are God because no man can do the things that you do except God be with Him. So Nicodemus and his friends were saying, Wait a minute. How can He do these miracles without the power of God? The division among them. 바리새인 중의 한 사람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적이 있음을 여러분도 기억할 것이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일 줄 압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당신이 행하는 일을 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니고데모와 그의 친구들은 이렇게 말하는 무리에 속하게 되었을 것이다: 좀더 기다려 보자. 하나님의 권능이 아니고서야 저가 어떻게 이런 기적들을 행할 수 있겠느냐? 여하튼 그들 사이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었다.

They said unto the blind man again, What do you say of him, that he hath opened your eyes? He said, He is a prophet (9:17).

Now notice, "A man named Jesus," and now he's getting closer, "He is a prophet." It's beginning to sink in what's happened. Just a man could not have opened my eyes. He is a prophet. 자, 주목해 보라. "예수라 불리는 사람이"라고 말하던 그가 이제는 보다 더 사건의 핵심에

접근하고 있다. “그분은 선지자이십니다.” 이것은 발생한 사건의 본질에 점점 더 접근해 가는 모습이다. 보통 사람은 나의 눈을 뜨게 할 수 없습니다. 그분은 선지자이십니다.

But the Jews did not believe concerning him, that he had been blind, and received his sight, until they called his parents. And they asked them, saying, Is this your son, whom you say was born blind (9:18,19)?

You say that that was the case. 너희가 이 사건에 대해 설명해 보라.
how is it then he can now see (9:19)?

It is so difficult to argue against this kind of evidence. What can you say? The guy says, Hey I don't know. But this I do know, I was once blind and now I can see. How can you argue against that evidence? 이런 종류의 증거를 논박하기는 아주 어려웠다. 너는 뭐라고 말하려느냐? 그 사람은 ‘내가 모른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라고 응수했다. 내가 아는 것은 이것뿐입니다. 내가 과거에는 소경이었는데 이제는 보게 되었다는 사실 뿐입니다. 이런 증거를 당신들은 왜 부인하려 하는 겁니까?

When Peter and John were going into the temple and the lame man who was a beggar was seeking alms from them, and Peter said, I don't have any silver or gold but what I do have, I'll be glad to give to you. In the name of Jesus Christ of Nazareth, rise to your feet and walk. And he took the man by the right hand, lifted him to his feet and immediately, the man was healed. He began to walk, he began to run through the temple, walking, leaping, praising God. And the people all said, Isn't that the man who has been begging all these years? Sure look like him. How is it that he can walk? Let's find out. And they followed him out to Solomon's porch where Peter was still standing and the man grabbed hold of Peter and John, began to hug them, and probably kissed them and all, and thus they began to relate the miracle to Peter. And Peter then preached a sermon. He was arrested along with the lame man and John. They were brought to trial and the question was, How did you do it? And Peter said, If we are examined this day by what means this lame man is made whole, be it known unto you that it's by the name of Jesus Christ of Nazareth that this man is standing here whole. And Peter went on to preach to them that there is no other name given among men whereby we must be saved. And it said, And seeing the lame man standing there whole, they could say nothing against it.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고 있을 때,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던 한 절름발이가 그들을 보고 적선해 주기를 청했다. 베드로는 이렇게 답하였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흔쾌히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면서 그 사람의 오른 손을 잡아 일으키니 저가 즉시 고침을 받았다. 그는 걷기 시작하였으며, 성전 안을 뛰어다니며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다. 모든 사람들은 이가 오랫동안 구걸하던 그 사람이 아니냐? 라고 말했다. 분명히 그와 모습이 같다. 그런데 저가 어찌해서 걷게 된 것일까? 가서 그 원인을 알아보자. 그들은 저를 따라 솔로몬 행각으로 갔는데, 베드로는 아직도 거기 서 있었다. 고침 받은 자는 베드로와 요한을 끌어안으며 입을 맞추는 등 야단이었을 것이다. 사람들은 발생한 기적에 대해 베드로에게 진술하기 시작했다. 그 말을 들은 베드로는 일장 연설을 하였다. 베드로는 그 고침 받은 자 및 요한과 함께 체포되었다. 그들은 재판정으로 끌려가 이런 질문을 받았다: 너희가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을 행하게 되었느냐?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절름발이가 온전하게 된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고 심문을 받는다면, 너희가 이것을 알아야 할지니 곧 여기 서 있는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온전하게 되었다는 사실이니라. 베드로는 계속하여 설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천하 인간에게 주신 일이 없다 고 하였다. 그런데도 절름발이가 온전하게 되어 옆에 서 있으니 사람들은 한

마디도 반박하는 말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That's the kind of evidence. Blind people seeing. Lame people walking. How can you argue against that kind of evidence? The greatest proof of Christianity, the greatest evidence for Christianity is you who were once blind but now see. You who were once lame who are now walking in the wholeness and the fullness of Jesus Christ. You whose lives have been transformed by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You make the strongest evidence and the strongest case for the validity of Christianity. Lame man standing whole. Blind people seeing. Messed up lives restored. That kind of evidence, all of the argumentation of the world cannot dispute it. 이것이 증거였다. 소경이었던 사람들이 보게 되었고 절름발이였던 사람들이 걷게 되었다. 이런 증거들을 어떻게 반박할 수 있단 말인가? 기독교의 최대 증거는, 기독교에 대한 최대 증거는 과거에는 눈이 멀었으나 지금은 보게 된 여러분들이다. 과거에는 절름발이였으나 지금은 온전하게 되어 걸으며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된 여러분들이다. 성령의 권능으로 변화된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다. 여러분이야말로 기독교의 정당(正當)성에 대해 가장 강력한 증거를 제시하며 가장 강력한 옹호론을 펼 수 있는 사람들이다. 절름발이가 온전하게 되어 일어서고, 소경들이 보게 되고, 뒤죽박죽이 된 삶이 회복되고 하는 이런 증거들에 대해서는 이 세상의 그 어떤 논리로도 대항할 수가 없는 것이다.

So they didn't believe that he was blind. Some kind of a rouse. So they brought his parents. Is this your son that you say was born blind? And how is it that he can now see? 어쨌든 저들은 그가 소경이었다는 사실을 믿지 않았다. 일종의 억지였다. 그래서 그들은 그의 부모를 데려왔던 것이다. 이 자가 나면서부터 소경이라고 하던 그 아들이냐?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해서 지금은 볼 수 있게 되었느냐?

His parents answered them and said, We know that this is our son, we know that he was born blind (9:20):

Who has opened his eyes, we don't know: he is of age; ask him (9:21):

They're passing the buck. 그 부모는 즉답을 피하고 있었다.

They were afraid of the Jews: because the Jews had already determined, that if anybody would acknowledge that Jesus was the Messiah, they would be ex-communicated (9:22).

They would not be allowed to go into the temple or they would not be allowed to go into the synagogue. They would be ex-communicated from the religious life of the community. 예수를 메시아로 시인하는 사람들은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거나 회당에서 쫓겨나거나 했다. 그런 사람들은 종교 생활 공동체로부터 파문을 당하게 되어 있었다.

This goes back to the book of Ezra chapter ten, verse eight where Ezra called a convocation of the people to deal with the problem and he said, "If any man does not come and gather with this convocation, he will be put out of the camp." That is, of the camp of Israel. So following that, they had determined if anybody had confessed that Jesus was the Messiah, they would be put out of the synagogue. 이런 전례는 에스라서 10장 8절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거기에 보면 에스라가 어떤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백성들을 소집한 후 말하기를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좇아 삼 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 재산을 적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회에서 쫓아내리라"고 한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진으로부터 쫓아낸다는 뜻이었다. 그런 전례를 좇아 사람들은 예수가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자는 누구나 성전에서 쫓아내야 한다고 결의를 했던 것이다.

And so his parents were fearful of ex-communication. 그러므로 이 부모는 그런 파문이 두려웠을 것이다.

So they said, Look, he's of age; ask him [and he can speak for himself]. Therefore they called the man that was blind, and they said unto him, Give God the praise: we know that this man is a sinner (9:23,24).

Just praise God, we know that this man is a sinner. 하나님만을 찬양하리니, 우리는 그 자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 뿐이라.

He answered and said, Whether he be a sinner or not, I don't know: but one thing I know, that, whereas I was blind, now I see (9:25).

You're saying one thing about Him and I don't know. But this is what I know for certain, I was blind and now I can see. 당신들은 그분에 대해 다른 말을 하는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직 제가 분명히 아는 것은 이것인데 즉, 제가 전에는 소경이었으나 지금은 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Then they said unto him again, What did he do to you? how did He open your eyes (9:26)?

They're pressing now again. And I think he's sort of tired of it all. 그들은 한 번 더 그에게 채근하였다. 그는 이제 아마도 그 모든 일에 지쳐 있었을 것이다.

So he answered and said, I already told you, did you not hear: why would you hear it again? You want to become one of his disciples (9:27)?

He really got them. 그는 참으로 저들을 흥분 시켰다.

And they reviled him, they said, You are his disciple; but we are Moses' disciples. We know that God spake unto Moses: as for this fellow, we don't even know where he came from (9:28,29).

The fellow's into it already so he figures he'll go all the way. 이 사람은 이미 예수께 폭 빠져있었으므로, 자기는 끝까지 예수를 따르겠다는 암시를 했다.

The man answered and said unto them, Why herein is a marvellous thing, you don't know from whence he is, and yet he has opened my eyes. Now we know that God heareth not sinners: but if any man be a worshipper of God, and does his will, him he hears (9:30,31).

Here's a marvellous thing, fellows. You don't know where He's come from and yet He's opened my eyes. 여러분이여, 이것이야말로 놀랄 일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분은 나의 눈을 고쳐주셨는데도 여러분은 그분이 어디서 왔는지조차 모르다니, 놀랄 일이 아닙니까?

In the Old Testament, David in the Psalms said, "If I regard iniquity in my heart, the Lord will not hear me" (Psalm 66:18). In Job, he said concerning the hypocrite, "Will God hear his cry when trouble comes upon him" (Job 27:9)? Isaiah said, "God's hand is not short, that He cannot save; His ear is not heavy, that He cannot hear: But your sins have separated you from God" (Isaiah 59:1,2). 구약 시편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말했다: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시 66:18). 욥기에 보면 위선자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환난이 그에게 임할 때에 하나님이 어찌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랴" (욥 27:9). 이사야서에는 이런 구절이 나온다: "여호와와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사 59:1,2).

It isn't that God doesn't hear, it's just that your relationship with God has been severed as the result of your sin. And then in Isaiah, God said to the people, "When you spread forth your hands, I will hide My eyes from you: yea, when you make many prayers, I will not hear: because your hands are full of blood" (Isaiah 1:15). And then in Ezekiel, "Though they cry in my ears with a loud voice, yet will I not hear them" (Ezekiel 8:18). They believed that God did not hear the prayer of sinners. But they did believe that God heard the prayers of righteous men. 하나님께서 듣지 못하시는 게 아니라, 단지 너희 죄의 결과로 너희와 하나님 사이가 단절되었다는 말이다. 또한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사 1:15). 그리고 에스겔서에는 이런 구절도 나온다: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갇아 아껴 보지 아니하고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겔 8:18).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는 죄인의 기도는 듣지 않으시지만, 의인의 기도는 들으신다고 믿고 있었다.

“The eyes of the Lord are upon the righteous and His ears are open to their cry” (Psalm 34:15). He will fulfill the desire of them that fear Him: He also will hear their cry, and will save them” (Psalm 145:19). “The Lord is far from the wicked: but He hears the prayers of the righteous” (Proverbs 15:29). “여호와와 의인은 향하시고 그 귀는 저희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시 34:15). “그분은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의 소원을 성취하실 것이다. 그분은 또한 그런 자들의 소원을 들으실 것이며 그런 자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시 145:19). “여호와와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잠 15:29).

So this man is using their scriptures. He said, We know that the Lord doesn't hear sinners. They've accused Jesus of being a sinner. “Give praise to God because this man is a sinner. And he said, Whether he is a sinner or not, I don't know, but I do know, I was once blind, and now I can see.” He's now saying, “We know that God doesn't hear sinners: but if any man be a worshipper of God and does His will, He hears.” 지금 이 치료 받은 사람은 바리새인들의 성서를 인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우리는 주께서 죄인들의 기도는 듣지 않으신다는 것을 압니다’라고 말했다. 그런데도, 저들은 예수를 죄인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이 사람은 죄인이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는 대답했다: 그 분이 죄인인지 아닌지 나는 잘 모릅니다. 단지 제가 아는 것은 제가 과거에는 소경이었으나 지금은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말은 실은 이런 의미였다: “우리는 하나님이 죄인들의 기도는 듣지 않으신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만일 하나님을 경배하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면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실 것입니다.”

Since the beginning of the world have you ever heard of any man opening the eyes of one who was born blind (9:32).

Of all of the miracles of the Old Testament, we don't read of anyone born blind who was healed. So this man is calling their attention to that interesting fact. Since the beginning of the world, have you ever heard of a man who was born blind being able to see? 구약의 모든 기적들 중에도, 소경으로 태어난 이가 고침 받았다는 기사는 없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지금 이 흥미로운 사실에게로 저들의 관심을 끄는 중이었다: 창세 이래로, 소경으로 태어난 자가 볼 수 있게 되었다는 얘기를 여러분은 들어본 적 있습니까?

If this man were not of God, he could do nothing (9:33).

One of the problems of dealing with a person logically is that when you have them nailed, they become irrational. They forget argumentation and all, and they just become totally irrational. And what this man is saying makes sense. But they don't want to face facts. It's sort of, Our minds are made up concerning Him, don't confuse us with the facts. 논리적이지 못한 사람들을 다룰 때 문제점들 중의 하나는 그런 사람들은 궁지에 몰리면 이성을 잃는다는 점이다. 그들은 토론이나 변론 따위는 도외시한 채 전적으로 비이성적인 사람이 되어버리고 만다. 이 고침 받은 소경이 하는 말은 이치에 맞다. 그러나 저들은 사실을 들춰내고 싶지 않았다. 예컨대 이런 태도이다: 그 사람에 대해 우리는 걱정할 바가 있으니, 사실을 들이대며 우리를 혼돈시키지 말라.

They answered and said unto him, You were altogether born in sins (9:34),

They are declaring that his blindness was the result of his prenatal sins. You were born in sin. You were born blind. 지금 이들은 그가 소경이 된 것은 그가 태어나기 전에 지은 죄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너는 죄 가운데서 태어났다. 그러므로 너는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 된 것이다.

and are you trying to teach us? And they cast him out (9:34).

Ostracized him. They closed the doors to him. 저들은 그를 사회로부터 격리시켰다. 그를 사회로부터 추방 시켰던 것이다.

When Jesus heard that they had cast him out; and when he had found him (9:35),

The indication is here that Jesus looked for him and found him. He heard that the man had been cast out. And so He came to him and He found him, and 여기서 시사하는 바는 예수께서 이 사람을 찾아 만나셨다는 것이다. 그분은 그가 추방을 당했다는 얘기를 들으셨다. 그래서 그분이 친히 그를 찾아 만나신 것이다. 그리고

he said unto him, Do you believe on the Son of God (9:35)?

In those days, they did believe that the Messiah would be the Son of God. That was the common belief among the rabbis. There was that prophecy in Isaiah, “Unto us a child is born, unto us a Son of given: the government shall be upon His shoulder: His name shall be called Wonderful, Counsellor, The mighty God, The everlasting Father, The Prince of Peace” (Isaiah 9:6). The Son is given. God is going to give His Son. And so, “Do you believe on the Son of God?” 당시, 사람들은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그것은 랍비들 사이에서 공통적으로 믿어지고 있던 사실이었다. 이사야서에는 이런 예언이 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사 9:6). 아들이 주신 바 되었다. 즉,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이렇게 질문 하셨던 것이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When Jesus said to His disciples, Whom do you say that I am? Peter answered and said, You are the Messiah, the Son of the living God. When Jesus was being questioned by the high priest at His trial, he said, Are you the Messiah? And Jesus said, You said it. He said, Are you then the Son of God? And again Jesus said, You said it. But you see, the one question followed the other. If You say that You are the Messiah, then You are saying, You are the Son of God. Because at that time, they did believe that the Messiah would be the Son of God. 예수께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으셨을 때,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했다: 당신은 메시아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께서 재판정에 서셨을 때 대제사장은 네가 메시아냐? 라고 물었다. 예수께서는 네가 말했느니라 고 응수하셨다. 그렇다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냐? 예수께서 다시 네가 말했느니라 고 대답하셨다. 그러나 질문은 연이어졌다. 네가 스스로 메시아라고 말하니 이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냐? 그들이 이렇게 끈질기게 물은 것은, 당시에는 메시아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라는 믿음이 만연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At the present time, they have changed that opinion. Today they say that they do not believe that Jesus is the Messiah because He claimed to be the Son of God and they said, We do not believe that the Messiah will be the Son of God. That reflects a change in the whole teaching of the rabbis and a change that was brought about because of Jesus Christ. But at that time, the rabbis did believe that the Messiah would be the Son of God. Today they take the prophecy of Moses, “There shall arise a

Prophet like unto myself; to Him you shall give heed” (Deuteronomy 18:15). And they say, Moses was a man, and thus the Messiah will be a man. But again, the logical question: If the Messiah is a man, how will you know that He is the Messiah? How will you recognize Him? And their answer to that is, He will lead us in the rebuilding of our temple. 지금은 저들의 견해가 바뀌었다. 그것은 예수께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신 까닭이다. 오늘날에는 그들이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예수가 메시아라고 믿지 않으며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라고도 믿지 않는다. 이는 랍비들의 가르침 전체가 변했다는 것을 반영하는데, 이런 변화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초래된 것이다. 하지만 당시에는, 랍비들이 메시아는 하나님이 아들이 될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오늘날 사람들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중 네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신 18:15)는 모세의 예언에 대해 이런 해석을 내린다: 모세는 사람이었으므로, 메시아도 사람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논리적으로 볼 때 이런 질문이 생기게 된다: 만일 메시아가 사람이라면, 어떻게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는가? 어떻게 그분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겠는가? 이에 대한 저들의 대답은 이랬다: 그분은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 성전 재건을 지휘하실 것이다.

And so the Jews today are looking for a man to come and lead them in the rebuilding of the temple, ready to acclaim Him as their Messiah. Jesus said, “I came in My Father’s name, you did not receive Me: another one will come in his own name, him you will receive” (John 5:43). He came declaring that He was the Son of God. A man will come, not claiming to be a Son of God. They will receive him and after that, He will then claim to be God Himself. He will come to the rebuilt temple, stand in the holy of holies and declare that he is God and demand to be worshipped as God. 따라서, 유대인들은 와서 그들의 성전 재건을 지휘할 한 사람을 지금도 찾고 있다. 그들은 그런 사람이 있으면 즉시 메시아라 부를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나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들어보자: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며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요 5:43). 그분은 오셔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언하셨다. 하지만 사람들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지 않을 다른 사람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다. 그들은 그런 사람이 나타나면 영접할 것이며, 그 사람은 자신을 하나님으로 주장하게 될 것이다. 그는 와서 성전을 재건할 것이며, 지성소에 서게 될 것이며, 자신을 하나님이라 주장하며 하나님으로 경배하라고 사람들에게 요구할 것이다.

But Jesus said to him, “Do you believe on the Son of God?” on the Messiah? 그런데 예수께서는 고침 받은 자에게 이렇게 물으셨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이것은 ‘메시아를 믿느냐?’란 의미이다.

He answered and said, Who is he, Lord, that I might believe on him? And Jesus said unto him, Thou hast both seen him, and it is he that is talking with you (9:36,37).

Sort of like the woman of Samaria who said to Jesus, We know that when the Messiah comes, He is going to teach us all things. And Jesus said, Woman, I who am speaking to you, am He. So here again, Jesus acknowledges, not publicly, but to this man who had been ostracized by the religious system of the day the fact that He was the Messiah, Son of God. 이 구절은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떠올리게 한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메시아가 오신다면 그분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실 줄을 우리가 압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여인아, 지금 너와 대화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이니라. 그러므로 여기서 재차 예수께서는 자신이 메시아 즉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시인하셨던 것이다. 그러나 대중 앞에서 시인하신 것이 아니라, 당시의

종교 체제로부터 과문을 당한 한 사람 앞에서 그렇게 하셨다.

And he said, Lord, I believe. And he worshipped him (9:38).

How is it that you can see? A man named Jesus put clay in my eyes and told me to wash and I can see. But then it went from that, Who do you say that He is? I think He's a prophet. And now, Jesus said, Do you believe on the Son of God? Who is He, Lord? And He said, The One who is speaking to you. And he said, I believe. And he worshipped Him. The progressive revelation that ultimately brought him to the place of worship. 네가 어떻게 해서 볼 수 있게 되었느냐? 예수라는 분이 내 눈에 진흙을 바르신 후 저보고 가서 씻어라 고 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순종하니 제가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너는 그를 누구라 하느냐? 저는 그분이 선지자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는 예수께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고 물으셨다. 주여, 그분이 누구십니까? 너와 얘기하고 있는 이가 바로 그분이시다. 제가 믿나이다. 이렇게 말하고는 그가 그 분께 경배를 드렸다. 점차적으로 계시가 전개되어 가다가 마침내, 그는 그분을 경배하기에 이른 것이다.

And that is God's purpose in the revealing of Jesus Christ to us, to ultimately bring us to the place of worshipping Jesus. You remember when Jesus was in Galilee and they opened up the roof of the house to let the man down with palsy. Jesus said unto the man, Your sins are forgiven. They said, Who can forgive sins but God? And Jesus said, That you might know that the Son of God has power on earth to forgive sins. What's easier to say, Your sins are forgiven; Arise, take up your bed and walk? Here again, the idea of the proof by the healing of this man with palsy. Said to the man, Take up your bed and walk. And he did. More difficult to do that than to say, Your sins are forgiven. But showing that He is God.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계시해주는 하나님의 목적이다. 결국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경배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사람들이 어떤 집의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를 달아 내린 사건이 있었다. 예수께서 그 병자에게 말씀하셨다: 네 죄가 사해졌느니라. 사람들이 말했다: 하나님 외에 그 누가 죄를 사할 수 있단 날인가?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내가 너희로 알게 하리라.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라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고 말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여기서도 역시 예수께서는, 이 중풍병자를 고침으로써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셨던 것이다. 예수께서는 그 중풍병자에게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고 명령하셨다. 그러자 그는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 이는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고 말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었다. 그것은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And so here, only God is to be worshipped. Jesus allowed him to worship Him. 그리고 오늘의 본문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이 경배를 받으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고침 받은 자가 그분을 경배하도록 허용하셨다.

And Jesus said, For judgment I am come into this world, that they which see not might see; and that they which see might be made blind (9:39).

He's come to open the eyes of the blind that they might see the truth of God. And yet, those who are pretending to see, taking positions of leadership in a religious sense, declaring to be in the light, might be blind. 그분이 오신 것은 눈 먼 사람들로 하여금 그 눈을 떠 하나님의 진리를 볼 수 있게끔 하시려고 함이었다. 하지만, 자칭 본다고 하는 자들은, 종교적인 지도자로 자임하는 자들은, 빛 가운데서 산다고 주장하는 자들은 오히려 소경이 될 수밖에 없었다.

And some of the Pharisees which were with him heard these words, and said unto him, Are we blind also? Jesus said unto them, If you were blind, you would have no sin: but now you say, We

see; therefore your sin remaineth (9:40,41).

It's so important that we not allow ourselves to be blinded by prejudice, by pre-conceived ideas and by tradition. These are three things that blind people to the truth. There is traditional religion. And so many people are blinded by the traditions. You've met them. You've seen them. You perhaps know them. And this is within the church. People who worship by tradition but they don't know the truth of Jesus Christ. They don't know what it is to be born again. 우리가 선입견에 의하여, 편견에 의하여, 전통에 의하여 눈이 멀게 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 이 세 가지가 사람들의 눈을 가려서 진리를 보지 못하게 한다. 종교적인 전통이 있다.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전통에 의해 눈이 멀어 있다. 여러분도 그런 사람들을 만났을 것이며 보았을 것이다. 아마도 그런 사람들을 알고 있을 것이다. 이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는지 모른다. 전통을 좇아 경배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른다. 그들은 거듭 난다는 것이 무엇지를 모르고 있을 것이다.

People who are blinded by prejudice. They have their own bias, their own opinions. And they can't see it any other way. And people who are blinded by pre-conceived ideas. Whenever I come to the Word of God, I pray, Lord, don't let me be blinded by prejudice, by pre-conceived ideas, by traditions. But let my heart be open that Your Holy Spirit might teach me Your truth from Your Word. And I highly recommend that as a prayer for you when you come to the Word of God. 선입견에 의해 눈이 먼 사람들도 있다. 그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과 의견을 가지고 있다. 어떤 것을 다른 시각에서는 볼 수 없는 사람들이다. 편견에 의하여 눈이 멀어 있기 때문이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한다: 주여, 제가 선입견에 의하여, 편견에 의하여, 전통에 의하여 눈이 멀게 되지 않도록 해 주시옵소서. 저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당신의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 제게 당신의 진리를 가르치실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려 할 때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기를 내가 강력하게 권고하는 바이다.

Don't come with pre-conceived ideas. Be willing to let the Word of God speak to you over and above the traditions and over and above your prejudice. Be open to the Spirit of God instructing us from the Word of God as He leads us into the truth of God. 그릇된 선입견을 가지고 오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증거 하도록 하되 전통을 넘어서, 여러분의 편견을 넘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라. 하나님의 영에게 마음을 열어,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을 가르치시며 하나님의 진리 속으로 인도하실 수 있도록 하라.

Father, thank You that Your word is true. And Lord, we know how easy it is to fall into tradition, into interpreting the scripture by our preconceived ideas. Or oftentimes by our early training. So that we develop a bias, a prejudice. And Lord, our eyes then are closed. We're not open to the things that You would teach and show to us from Your Word. Lord, we thank You that where we were once blind, now we see. Thank You for opening our eyes to that life in Christ that we can enjoy. Thank You, Father, that You have caused us to be born again by the Spirit of God and coming into this dimension of the Spirit, we can walk in the light even as You are in the light. And so Lord, help us. Help us to ever be open to hear Your voice as You speak to us through the Word. In Jesus' name, Amen. 아버지여, 당신의 말씀은 진리인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전통에 빠지는 것이, 우리의 편견에 빠져 성서를 왜곡하기가 얼마나 쉬운지를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받은 교육이 잘못 되어서 우리의 편견이나 선입견을 키우기도 했습니다. 주여, 그럴 때는 우리의 눈이 멀었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당신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고 가르쳐주시고자 하는 것들에 대해 맘을 닫고 있었습니다. 주여,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과거에는 우리가 소경이었으나 지금은 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향유할 수 있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 날 수 있게 하시고 성령의 차원에서 살게 하시며, 당신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서 행할 수 있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주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를 도우셔서, 당신께서 당신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언제든지 우리가 당신의 말씀에게 귀를 기울이며 맘을 열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